

효성, '자매결연' 광개토�부대 10년째 후원

4400만원 상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효성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효성은 1일 육군 1군단 광개토킵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달한 위문금과 위문품은 4400만원 상당이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육군 장병들의 체력 단련과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10년 수도권 북방과 서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1군단 광개토킵대와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매년 광개토킵대를 방문해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과 장병들을 위한 독서 카페시설 등을 후원해왔다.

한편, 효성은 지난 22일 100여 명의 중증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에넌복지재단에



효성이 육군 1군단 광개토킵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효성 이정원 전무(왼쪽)와 육군 제1군단장 황대일 중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시설개선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했다. 효성의 후원금은 쓰레기봉투 생산에 필요한 인쇄기, 복열기 등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

고, 장애인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결국 소비자에게 남는 것은



기자 수첩

조효정
(유통&라이프부)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

식품업계에 몰아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가 크다. 연일 줄어드는 매출에 기업은 고정 및 가변 비용을 감축하기에 정신이 없다. 가장 쉬운 비용절감 방식은 뭘까. 흔히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건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받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이후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사유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맥도날드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 측에 매장 인력 총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맥도날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근무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근로자의 업무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근무조정 등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스타벅스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매장 파트너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후 점장에 의해 해당 고객에 사과해야 했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관계사 측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고 있다. 각 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를 접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결국 인기 있는 캠핑용 의자도, 맛있는 과자도, 할인 행사도 아니다. 바로 '기업의 갑질 이미지'가 남는다. 그리고 이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

앞서 1위를 차지하던 유제품 기업은 반복되는 노사갈등 및 갑질 이슈가 원인이 돼 불매운동의 여파를 맞은 바 있다.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또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결국 기업의 미래를 감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뿐이 아닌 '진짜' 동료(crew)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princess@

롯데정밀화학 '유록스' 광고 1000만뷰 돌파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EUROX)' 영상 광고가 온라인에서 한 달 만에 1000만뷰를 돌파하면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치어리더 박기량, 안지현과 함께 새로운 광고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광고는 지난달 1일부터 유튜브와 네이버TV, 카카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시청자들로부터 한 달 가까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시청자들은

맛글을 통해 '1일 1유록스', '수능 금지곡', '광고인 줄 알면서 일부터 들어와서 다본 건 처음' 등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광고 모델로 발탁된 치어리더 박기량과 이번에 새로 합류한 치어리더 안지현에 대한 반응도 호의적이어서 광고 모델 선정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중독성 강한 CM 송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출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 같다"며 "광고 모델인 박기량 씨



유록스 영상 광고 장면 속 광고모델 치어리더 박기량(왼쪽)과 안지현. /롯데정밀화학

와 안지현 씨의 시너지 덕분에 유록스 프리미엄 3.5L 신제품의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5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48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6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2년생**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4년생** 아무리 바빠도 우편물은 꼭 살펴라.
- 37년생** 때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49년생**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6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은 없다. **7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
- 38년생**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50년생**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62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7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86년생** 여의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 39년생** 흥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51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자. **63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7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87년생** 이기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라.
- 40년생**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52년생** 동봉사주 바쁘지만 하고 싶속은 없다. **64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7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 41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 **5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65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7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89년생** 추적으로 기분을 달랠다.

- 42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다. **54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 **66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78년생** 종로에서 뽕뽕하고 한강 가서 분골이. **90년생** 행복은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
- 43년생** 자식으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55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내면 된다. **67년생**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79년생** 외출할 때 이론차를 조심. **9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 44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56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6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0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92년생**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 45년생** 자식이 많으니 근심도 많다. **57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69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이야. **8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9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 4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8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 **70년생** 처음이 중요하다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8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94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 47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59년생**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71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83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온다. **95년생** 붉은색, 숫자 6이 행운을 준다.



김상희의四季

일상의 감사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소소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 즉 '소확행'에 대한 인식은 복잡한 현대문명 속에서 정신을 쉬고 재충전하는 일종의 비타민 같은 것이었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강제적 격리와 거리 두기는 그리고 질병 전염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개개인의 동선 감지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현실로 맞부딪혔음을 공인하게 됐다.

가족끼리도 포옹할 수 없고 손을 잡기도 조심스럽다. 필자의 한 지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운동 중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했는데 미국 방문 후 한국의 자가 격리 규정으로 인해 바로 달려가질 못했다. 어렵사리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미국행을 했지만 아들의 첫 마디는 삼 일간은 포옹은 고사하고 손잡는 것도 안 된다며 후시 열이 나는 것은 아닌 지도 잘 체크하라는 소리였다며 서운해 했다. 미국도 여전히 환자 증가관계로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기에 그러마 했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재택근무를 전제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가 회사로 돌아갔다. 미국에 다녀온 게 찜찜한 지 검사결과가 음성이며 무증상임에도 직원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까지 멀게 한 것이 코로나인 것이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앞으로는 여러 감염질환이 몇 년을 주기로 발병할 것이 대세일 듯한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의 눈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부에서 식사도 할 수 없었다.

소확행은 커녕 일상의 움직임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으니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실제로 아직 전조증상을 겪고 있을 뿐이 다라는데 경제와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8	C	6	B	2	
7	9	3		1			4	8
	C	5	2	4			A	1
		B		8			A	9
6	A		5	4				7
2		C		1			8	
		8		7		C		2
2				B	3		5	4
	A	1		5			9	
C	2				9	8	3	B
8	1			2			6	4
4	B		6	A		2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 결함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4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3호